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성장하겠다”

장지현 경희대 교수, 이달의 전남대인 선정 수준 높은 연구력 인정 모교 명예 드높여

“이달의 전남대인 표창을 계기로 모교에 대한 더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장지현(39) 경희대 교수가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전남대 치과대학 및 동 대학원 출신의 장지현 경희대 교수를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장지현 교수는 치과보존학 분야의 국제학술지(SCI급)에 40여편의 논문을 실는 등 수준 높은 연구력을 인정받아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2019년) 기념 연구부문 경희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2018년 전남대 치과대학에서 연구분야인 치수재생과 관련한 강연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치과보존학교실과 지속적인 학문과 연구 활동의 연대와 협력이 나가고 있다.

장지현 교수는 “모교의 오랜만 교수님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돼 달라’고 당부하셨으나 이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모교와 연구활동을 함께 하고 아이디어는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이달의 전남대인 표창을 계기로 모교에 대한 더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성택 총장은 “갈수록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어려워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장지현 교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학술과 연구 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며 모교의 명예를 빛내줘 감사하다”며 “전남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고 극대화하는데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대 수여식은 지도교수였던 오원만 교수와 김원재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장 교수의



장지현 경희대 교수가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장지현 교수(왼쪽 두 번째) 가족과 정성택 전남대 총장(맨 오른쪽).

남편이자 전대 동문인 최근호 원흥본치과의원(경기 고양) 대표원장 등이 함께 했다.

장지현 교수는 전남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치과보존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및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학부과정 중 전국 치과대학 학생연구대회에 3위에 입상했으며, 수련과정 중에는 보존학회 연구우수상, 인턴 공로상, 모범직원 표창도 받았다.

졸업 후, 연세대 치과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 교육과 후학양성,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담양농협, 창립일 기념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담양농협은 3일 “8월15일 농협창립기념일을 맞아 용면 장천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 조합원과 병예조합원 3천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억8천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자재교환권은 농협창립일을 기념하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동행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을 섬기며 함께 하는 진정한 농업이 되도록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개발공사, 13개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전남개발공사는 3일 “주민이 제안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로당과 아동시설 등 전남도내 11개 지역 13개소에 에어컨과 제습기, 구급함 등을 지원하는 위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위문 활동은 지난 5월 전남개발공사에서 실시한 ‘가정의 달’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지역 경로당에 필수품인 ‘구급함’ 전달과 함께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에어컨, 제습기, 휠체어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통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머더위에 지친 도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소원정사·자비신행회 ‘도담도담 프로젝트’ 9차 지원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와 자비신행회의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가 최근 9차 지원을 완료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총 10개 피해아동 보호시설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매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해 물품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계스님은 지난 2일 학대로 집을 떠나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중학생 2학년, 초등생 6학년 남매에게 워터파크 이용권과 레고 장난감을 전달했다.

이들 남매는 현재 보육시설 생활을 정리하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는 이달까지 총 9차 지원이 이뤄졌다. 소원정사와 자비신행회 불자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부 모으기 운동에 함께할 계획이다.

도계스님은 “여름을 맞아 남매들이 엄마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 땅에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목포대불라이온스클럽, 원산동에 백미 기탁

목포대불라이온스클럽(회장 최병재)이 최근 목포시원산동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포를 운정을 나갔다.

목포대불라이온스클럽은 제47대 최병재 회장이 취임 축하선물로 받은 백미 20포를 원산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에 사용하달라며 지장·기탁했다.

최병재 회장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탁했다”며 “취임 축하 선물을 좋은 취지로 사용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전동 키포드 안전 이용 민·관·경 캠페인

영광군은 3일 “최근 영광을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키포드 이용 문화 확산과 쾌적한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영광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동빌리티협회, e-모빌리티기업(대풍이브이자동차, ㈜에이치비), 공유 키포드 대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광군청에서 시작해 터미널 사거리가

지 가두 행진과 전단지 배부를 통해 전동키포드 이용자 안전수칙과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부하행위 과태료 관련 사항을 홍보했다.

강종만 군수는 “공유 전동 키포드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키포드 이용의식 수준의 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은 캠페인 실시와 키포드 이용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주 기자



광주 백운 휴먼시아3단지 반딧불 작은도서관 개관

광주시 남구 백운1동 휴먼시아3단지 반딧불 작은도서관이 최근 개관했다.

주거행복지원센터동 3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LH공사 주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세단장했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30여평 남짓 면적으로 LH공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정모씨는 “개관식과와 보니 시설과 책들이 바뀐 친한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아이들과 자주 찾아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순 백운 휴먼시아 2,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반딧불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닌 모든 입주민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행복을 꿈꾸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대민 기자

동강대 응급구조과 학생들, 해수욕장 ‘라이프가드’ 활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현장에서 전공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1학년 한관·조현성·김수용·박지호(사진 왼쪽부터)씨는 지난달 1일부터 함평물놀이 해수욕장에서 ‘라이프가드’로 활동하고 있다.

라이프가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사고 발생 시 환자를 구조해 인명 소실을 방지하고 119소방에 환자를 인수인계 하는 등 여름 휴가철 피서객 안전 지킴이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는 매년 방학기간 전공과 연계해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있다.

올해도 박씨는 교수의 추천으로 1학년 4명이 라이프가드로 현장에 투입돼 8월 중순까지 전공 실력뿐 아니라 미래 응급구조사 자질을 갖추기 위한 현장 경험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한관씨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경



험할 수 있고 특히 라이프가드를 계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현성씨는 “사실 처음에는 덥고 힘들었지만 바닷가로 휴가 온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해양경찰과 소방에서 지원 나온 안전요원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미래 좋은 응급구조사가 되도록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다문화가정 아동 도서 지원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최근 정암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복지사업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도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전달했다.

다문화가정 아동 도서 지원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성취도 향상, 언어 발달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도서 기부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순천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600명에게 도서를 지원했다.

도서 지원은 다문화가정 아동 만 5-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문제로 인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 지도에 필요한 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암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모두가 여



려운 상황에도 잊지 않고 후원에 동참해준 현대제철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 언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나눔 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 기자



김영균 호남대 교수, 특산물 메뉴 개발 교육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학과장 김영균 교수는 지난 2일 보성군 군학마을 특화개발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에 특화음식 개발 컨설팅 강사로 초청돼 보성군 특산물인 녹두과 한우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군이 주관하고,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 주최로 보성군 군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보성 특산물인 녹두, 한우, 녹차 등으로 개발된 메뉴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녹두 맥주이, 수삼 부채살 씨겨자 냉채를 시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영균 교수는 ▲2014년 한국외식음료협회 전문위원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급식사무원 ▲2018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심사장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급식사무원 ▲2019 제48차 전국FFK(2019 광주대회) 심사위원 ▲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대회 심사위원 ▲2019 전주비빔밥축제 전국요리경연대회 심사위원 ▲2020 호남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2022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심사장 등 각종 대회에서 심사위원과 심사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광산구 기업주치의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외식업체에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결혼

●김병일·강영단씨 아들 재욱군, 김정수(현대자동차 광주 월산대리점) 딸 지연양=6일(토) 낮 12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씨엔홀.

부음

●조영애씨 별세, 양홍렬(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 국장)씨 병모상=발인 5일(금) 오전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061-723-4444)